

6. 외환 및 국제협력

가. 외국환

외환시장 안정 노력

2022년 중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국내 외환수급 측면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거주자 해외투자 상당폭 지속 등으로 미 달러화 수요가 우위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거래¹¹³⁾ 등 외환수급 안정화 대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장에서는 기대가 쏠리고 불안정성이 심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적시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환당국의 미 달러화 순매도 규모는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2/4~3/4분기 중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외환당국의 노력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쏠림이 완화되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이 경감되었다.

표 II - 13.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¹⁾

(억 달러)

시기	금액
21년 1/4분기	-1.03
21년 2/4분기	0.00
21년 3/4분기	-71.42
21년 4/4분기	-68.85
22년 1/4분기	-83.11
22년 2/4분기	-154.09
22년 3/4분기	-175.43

주: 1) 해당기간 중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
자료: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선 노력 지속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외환시장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우선 3월에는 원/달러 현물환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선도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외환당국과 선도은행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발전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아울러 외환시장 참가자들과 함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시장 인프라 확충 등 시장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하였다¹¹⁴⁾.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2021년 11월 본부에 도입한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¹¹⁵⁾을 전 지역본부로 확장도

113)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3절 다. 외환시장 안정조치'를 참조하기 바란다.

114)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7일 외환당국은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고필증 위변조 방지 기능, 이용자의 온라인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다.

나. 외화자산 운용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종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가운데 수익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2022년 말 현재 A등급 이상 채권이 96.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불확실성 확대 시 국제금융시장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위주로 운용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의 유동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통화 및 상품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규모 및 구성

2022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32억 달러로 2021년 말 대비 400억 달러 감소하였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환(유가증권, 예치금 등)이 3,990억 달러로 2021년 말 대비 393억 달러 감소한 가운데 SDR과 IMF 포지션은 각각 148억 달러, 45억 달러 수준이었다. 금은 48억 달러로 2021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 - 14.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기말 기준)

(백만 달러)

	2020	2021(A)	2022(B)	증감(B-A)
외환보유액	443,098	463,118	423,164	-39,955
외환	430,117	438,319	399,043	-39,276
SDR	3,371	15,370	14,836	-533
IMF	4,815	4,635	4,490	-145
금	4,795	4,795	4,795	-

자료: 한국은행

외화자산 구분 운용

한국은행은 운용목적에 따라 외화자산을 현금성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의 경우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현금성자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외화자금의 유출입이나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외화자금의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유지하면서 거래비용이 적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국채, 예치금 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하고 있다.

자금 유출입 등으로 현금성자산의 규모가 상당폭 변동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자산과의 자금이관을 통해 자산간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직접투자자산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 수익 획득이 가능한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 주요 국제통화로 발행된 장·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은 채권 및 주식이다.

유동성 확충에 중점을 두고 운용

2022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미 연준의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외화자산 운용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금리는 크게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하락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미달러화는 강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4/4분기 이후에는 경기둔화 우려, 인플레이션 속도 둔화 등으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속도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로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고 강세를 지속했던 미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되었다. 하락을 지속했던 주가도 위험회피 심리 약화, 중국의 코로나 방역정책 완화 등으로 반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외화 유동성 적시 공급이 긴요해졌으며 이에 한국은행은 보유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접투자자산으로부터 현금성 자산으로의 자산이관이 빈번해지고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현금성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시장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동성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외화자산을 운용하였다.

외화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전년대비 확대되고 투자자산 내에서 직접투자자산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위탁자산 비중은 소폭 확대되었다. 2022년말 기준 한국은행 외화자산 중 현금성자산은 10.0%, 직접투자자산은 65.7%, 위탁자산은 24.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통화별로는 위험회피심리 강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미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미달러화의 비중이 전년대비 확대되었다.

상품별로는 예치금 비중과 유가증권 중 자산유동화채 및 주식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반면 유가증권 중 정부채 및 회사채의 비중은 축소되었다.

표 II - 15. 외화자산¹⁾ 구성 내역(기말 기준)

	(% , %p)			
	2020	2021(A)	2022(B)	증감(B-A)
1.자산별				
현금성자산	5.1	5.2	10.0	4.8
투자자산				
직접투자자산	73.9	72.0	65.7	-6.3
위탁자산	21.0	22.8	24.3	1.5
2.통화별				
미달러화	67.7	68.3	72.0	3.7
기타통화	32.3	31.7	28.0	-3.7
3.상품별				
예치금	7.1	6.9	12.6	5.7
유가증권				
정부채	44.5	44.9	39.4	-5.5
정부기관채	14.4	14.1	14.1	0.0
회사채 ²⁾	13.6	12.9	11.0	-1.9
자산유동화채	11.5	10.8	11.5	0.7
주식	8.9	10.4	11.4	1.0
계	100.0	100.0	100.0	-

주: 1) <표 II - 14>의 외환 중 한국은행 외화자산

2) 미 회사채 ETF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리상승·달러화 강세에 대응한 헤지포지션 구축 등으로 수익성 방어

한국은행은 금리상승 등으로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 유동성 공급에 따른 포트폴리오 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채 현·선물 매도, 환헤지 포지션 구축, 장단기 금리차 역전 확대에 대비한 전략 실시 등을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자산 간 리밸런싱 제도 도입 및 회사채 ETF 투자 개시를 통해 위탁자산과 주식, 회사채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외화자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였다.

외화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외화자산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대외 리스크 증대에 대비한 외화자산운용 비상대응계획 및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지속함으로써 투자환경 변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신용리스크 분석 모델 변경 등을 통해 외화자산 신용리스크를 보다 적절하게 분석하고 리스크지표 산출주기를 단축하는 등 리스크 관리의 유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투자한도 설정 및 투자현황 분석 등을 통해 시장 및 신용리스크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였으며 담보관리 대상기관 확대, 외자운용시스템 개선 추진, 업무자동화 확대 등을 통해 각종 리스크 경감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역량 제고 및 금융산업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 거래기관 및 위탁운용사로 국내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제고 및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중에는 외화자산 직접운용 과정에서

5개 국내 증권사와 외화채권(38.4억달러) 매매 거래를 실시하였고 5개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 주식(5.9억달러), 선진국 주식(17.5억달러), 선진국 채권(7.0억달러) 일부를 위탁운용하였다¹¹⁶⁾. 선진국 채권 위탁운용의 경우 국내 금융사 위탁자산 범위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1월부터 개시하였다.

한국은행은 매년 국내 위탁여건과 운용역량을 평가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 규모를 상당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역량이 검증된 국내 운용사를 위탁대상기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위탁펀드 운용전략을 기존의 패시브(passive) 방식에 액티브(active) 방식을 추가하는 등 전략의 다양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표 II - 16. 외화자산 운용 시 국내 금융기관 활용 현황

유형	상품	대상기관 ¹⁾	규모	개시시기
외화채권의 매매거래	정부채, 정부기 관채, 회사채	증권사 (5)	38.4억 달러 ²⁾	2018년 1월
	중국 주식	자산운용사 (3)	5.9억 달러 ³⁾	2012년 6월
주식·채권 위탁운용	선진국 주식	자산운용사 (4)	17.5억 달러 ³⁾	2019년 4월
	선진국 채권	자산운용사 (3)	7.0억 달러 ³⁾	2022년 1월

주: 1) () 내는 거래기관 수

2) 2022년 중 거래금액 기준

3) 위탁원금 기준

자료: 한국은행

ESG 투자 확대를 통한 공적책임성 강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공적 책임성 요구에 부응하고 외화자산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위탁운용을 통한 ESG 주

116)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한 외환보유액 위탁운용 비중은 전체 위탁자산 중 3.9%를 차지한다.

식투자를 시작한 이후 ESG 투자¹¹⁷⁾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2년 중에는 그린본드, 소셜본드 및 지속가능채권 등을 꾸준히 매입하는 한편 외화자산 전반에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¹¹⁸⁾을 적용하면서 중장기 목표인 ESG 통합 전략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직접투자자산 중 회사채에 네거티브 스크리닝의 적용을 완료하였고, 위탁자산의 경우에도 채권 및 주식에 적용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ESG 채권 규모는 직접투자 자산이 68.5억달러, 위탁자산이 12.6억달러이고 주식의 경우 ESG 요소 적용 펀드 규모가 65.3억달러이다.

표 II - 17. ESG 관련 자산 투자 현황(기말 기준)

(억 달러)

상품	운용	규모 ³⁾			
		2020	2021(A)	2022(B)	증감(B-A)
채권 ¹⁾	직접	34.9	58.2	68.5	10.3
	위탁	8.9	14.1	12.6	-1.5
주식 ²⁾	위탁	10.8	17.9	65.3	47.4
	합계	54.5	90.2	146.5	56.3

주: 1) 그린본드, 소셜본드, 지속가능채권 등 ESG 채권

2) ESG 요소 적용 펀드 기준

3) 시가 기준

자료: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 외화자산 운용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세계은행(World Bank)과의 워크숍,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정례협의 등을 통

해 외화자산 운용 담당부서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업무경험 및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프랑스 중앙은행, 폴란드 중앙은행 과도 외화자산 운용업무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 밖에 일본 재무성, 중국인민은행과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투자자산 운용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및 각국 중앙은행 등의 초청으로 외화자산 운용 관련 국제포럼,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ESG 투자, 자산배분 등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경험을 공유하였다.

다.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글로벌 협력채널을 통해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을 시의성 있게 파악하여 정책대응의 유효성을 제고하였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대면회의의 재개에 맞추어 BIS, G20, IMF와 같은 글로벌 협의체 및 국제기구 현안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EMEAP 의장국으로서 총재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금융계와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사회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였다.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한국은행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정책공조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117) 투자 의사 결정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 또한 고려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118) ESG 투자전략 중 하나로 ESG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전략이다.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6회) 및 IMF·세계은행 회의(2회)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향, 통화정책 긴축의 영향, 기후변화 대응 등 금융경제 현안과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이 국제금융 관련 정책공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BIS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BIS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BIS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 등의 결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요국의 경제·금융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공조·조율을 강화할 수 있었다.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4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5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고물가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국제 자본이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금융포용 증진, 암호자산 및 CBDC, 기후변화 대응, 저소득국 부채상환유예 방안 등의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표 II - 18.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22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 (1·3·5월 화상회의, 6·9·11월 바젤)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 통화정책 긴축 속도, 팬데믹 이후 주택 가격, 신흥국 자본흐름, 원자재시장, 중앙은행 사이버리스크, 기후변화 등
IMF·세계은행 회의 (4월, 10월 워싱턴 D.C.)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 상황, 식량 및 에너지 위기, IMF·WB의 취약국 지원 방안 등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2월 화상회의, 4월 워싱턴 D.C., 7월 발리, 10월 워싱턴 D.C.)	글로벌 고물가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금융포용 증진, 암호자산 및 CBDC, 기후변화 대응, 저소득국 부채상환유예 방안 등

자료: 한국은행

역내 금융협력관계 강화

한국은행은 ASEAN+3, EMEAP, SEACEN 등 아태지역 협의체에서의 금융경제현안 논의는 물론 산하 실무그룹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역내 회원국 간 금융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ASEAN+3의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였다. 정부와 공동으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¹¹⁹⁾(1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2회) 및 실무 회의(4회)에 참석하여 제3국 역내통화 자금지원 제도, CMIM-PL 갱신 허용기준 완화 등을 반영한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EMEAP 총재 회의 및 중앙은행·금융감독기관수장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SEACEN 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금융경제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암호자산시장의 리스크 요인 및 향후과제, 기후변화 대응 현황 등 최신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SEACEN의 EXCO (Executive Committee) 자문위원회¹²⁰⁾ 위원으로서 SEACEN 센터의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119) 매년 ASEAN 10개국 중 1개국과 한·중·일 3개국 중 1개국이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의장국은 중국과 캄보디아가 담당하였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2022년에도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120) SEACEN 센터의 조직 및 급여체계 개편 업무를 지원하고 신규 인력 채용 자문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과 스리랑카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 - 19. 역내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22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제2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화상회의)	역내 및 세계 금융경제 동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
제22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화상회의)	각국 및 세계 금융경제 동향, 역내 금융협력 등
제27차 EMEAP 총재 회의 (8월, 서울)	최근 금융경제 동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역내 환율 및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11차 EMEAP 중앙은행·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8월, 서울)	금리 상승기 금융기관 자산 부실화 가능성과 중앙은행·감독기관의 과제 등
제58차 SEACEN 총재 회의 (12월, 시엠립)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대응 현황 등

자료: 한국은행

글로벌 교류 확대

한국은행은 글로벌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 인사 및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 7월 한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글로벌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직원들은 옐런 장관과 ‘경제학계와 여성(Women in Economics)’을 주제로 대담하였다.

한편 총재는 8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Jackson Hole Economic Policy Symposium)」에 참석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학계 인사들과 포워드 가이드스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최근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 여건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일부 세션에는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10월에는 피

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초청되어 글로벌 통화긴축 가속화 환경에서의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강연을 실시하였다.

그림 II - 22.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



자료: 한국은행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정책경험 공유 확대

한국은행은 8개의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환정책 등 중앙은행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경험 전수를 통해 이들 국가의 금융발전 및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은행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졌다.

먼저 지식교류프로그램(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이하 KPP⁽²¹⁾) 사업은 코

121) 한국은행의 업무 관련 지식, 정책수행 경험, 한국의 금융시스템·인프라 발전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사업을 말한다.

코로나19 방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대면 사업수행방식을 재개하는 등 사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신속하게 되돌리고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의 적극 활용 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국은행의 정책 경험과 업무 지식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수하였다. 또한 협력대상국 중앙은행 고위급(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등) 면담,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의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후방효과를 도모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대외위상을 제고하였으며 협력대상국 중앙은행과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KPP 사업수행시기를 6월~익년 1월로 조정(2개월 이연)함으로써 사업 결과물의 완성도를 제고하였으며, 수석고문을 확대(5→6명)하는 등 협력대상국과의 고위급 정책대화 채널을 강화하였다.

표 II - 20. 지식교류프로그램(KPP) 실적 (2022년 중)

협력대상국	사업과제
캄보디아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기법 개발
베트남	거시경제 분석 및 전망 역량 강화
네팔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 확대 영향 분석
몽골	은행 지배구조 강화
스리랑카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안정화 정책
우즈베키스탄	거시건전성 정책 및 분석 체계 강화
카자흐스탄	경제전망 및 분석 시스템 개선
키르기스스탄	통화정책 거시경제모형 개량

자료: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를 비대면 및 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외화자산운용, 지급결제, 내부경영, 금융안정 등 4개 분야에 걸친 한국은행의 경험을 개발도

상국 중앙은행 직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21개국 150명이 참여하여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표 II - 21.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실적 (2022년 중)

개최일정	참석인원
1차 CBSP (외화자산운용, 3월 28일~30일)	8국 44명
2차 CBSP (지급결제, 6월 20일~22일)	16개국 76명
3차 CBSP (내부경영, 8월 29일~9월 2일)	6개국 11명
4차 CBSP (금융안정, 10월 18일~21일)	10개국 19명

주: ()내는 주제 및 일정, 3차 및 4차는 대면 실시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확대

한국은행은 2022년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또는 협의체에 출자·출연금 2억 9천만 달러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제19차 재원보충,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가입 관련 출자,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African Development Fund) 재원보충 등으로 출자금이 증가하고 IMF의 수단 채무감면기금에 대한 납입 등으로 출연금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 규모는 총 178억 달러에 이른다.

표 II - 22.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백만 달러)

	2021년 말(A)	2022년 말(B)	증감(B-A)
출 자 금	16,493	16,741	248
IMF	11,861	11,861	0
IBRD	335	359	24
IDA	2,296	2,448	151
ADB	293	293	0
AfDB·AfDF	577	613	36
AIIB	748	748	0
CABEI	96	101	6
기타	288	319	31
출 연 금	1,006	1,048	42
IMF	79	121	42
IBRD	34	34	0
ADB·ADF	671	671	0
IDB·MIF	161	161	0
IIC	40	40	0
기타	21	21	0
출자·출연금 합계	17,499	17,789	290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2년 말 한국은행의 IMF에 대한 용자 규모는 8억 5천만 SDR이다. 이 가운데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에 따른 용자 규모는 3천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차입약정¹²²⁾에 따른 용자 규모는 8억 2천만 SDR이다. 2022년 중 총 용자 규모는 전년대비 5.3천만 SDR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차입협정에 따른 용자가 4.7천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 차입약정에 따른 용자가 0.6천만 SDR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II - 23. IMF에 대한 용자 현황

(백만 SDR)

	2021년 말 (A)	2022년 중		2021년 말 (D=A+B-C)	증감(D-A)
		용자(B)	상환(C)		
NAB	79	0	47	32	-47
PRGT	825	0	6	819	-6
합계	903	0	53	851	-53

자료: 한국은행

QR BOX



QR 1

한국은행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

122) IMF가 저소득국가에 대한 양허성 용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처음 용자를 실시하였다.